

研究論文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
-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

허 수*

I. 머리말	V. ‘문화적 민족주의’의 천도교적 변용
II. 『개벽』 초기의 ‘매체 전략’과 ‘사람성주의’	VI. 맺음말
III. 문화운동 비판과 ‘민족성 개조’론	<참고문헌>
IV. 정치운동 지향과 ‘범인간적 민족주의’	<국문요약>

I. 머리말

『개벽』은 식민지 시기 최대의 계몽적 종합월간지로서 1920년대 초부터 《동아일보》와 더불어 문화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활약했다. 이 때문에 『개벽』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나, 정작 『개벽』의 중심 이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며 논점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형편이다. 본 논문은 1923년 1월 『개벽』에 발표된 ‘범인간적 민족주의(汎人間的 民族主義)’가 『개벽』 주도층의 민족인식을 대표하며 『개벽』의 정치사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형성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것의 정치사상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벽』의 민족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천도교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와 『개벽』에 관한 분석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천도교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성과로는 정용서와 김정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동덕여자대학교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전공(cretaper@gmail.com).

정용서는 천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의 민족문제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일찍부터 범인간적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그는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어느 한 계급의 입장을 강요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며 민족문제 해결이 세계일가(世界一家)를 이루는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았다.¹⁾ 또한 그것은 자치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나 ‘각 민족의 실력양성을 통한 세계일가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동아일보 계열의 자치운동과는 구분된다고 했다.²⁾ 김정인도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자치운동 노선을 추구하는 천도교 신파(新派)의 민족주의”로 규정했다.³⁾

정용서와 김정인의 연구는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천도교의 자치운동과 관계 깊었고, 나아가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건설 지향과 구별되는 성격을 가졌다고 봄으로써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 의의를 가졌다. 그러나 양자는 『개벽』에 발표된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주로 천도교청년당이나 천도교 신파의 민족인식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형성과정과 그것이 『개벽』이라는 매체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킨 아쉬움이 있다.

한편 『개벽』에 관한 분석의 차원에서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포함한 제반 민족담론에 주목한 성과로는 김현주, 김정인, 최수일, 허수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김현주는 『개벽』에 발표된 이광수·이돈화 등의 ‘민족성 개조(民族性 改造)’ 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현주에 따르면 이들의 논의는 문명화와 진보를 불신하는 서구의 위기담론을 진지하게 수용한 결과물로서, 대중의 정치적 세력화와 공동체의 분열을 우려하면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적·사회적 통일을 강하게 추구한 성격을 가졌다.⁴⁾ 김현주의 연구는 『개벽』의 민족성 개조 논의가 가진 문명 비판 담론으로서의 특징을 부각시킨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을 민족성 개조 논의 단계에 국한하고 범인간적 민족주의 단계는 누락시킴으로써 정작 『개벽』

1)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임경석·차혜영(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155~157쪽.

2) 위의 논문, 163쪽.

3) 金正仁, 『日帝強占期 天道敎團의 民族運動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2), 163쪽.

4) 김현주, 「민족과 국가 그리고 ‘문화’: 1920년대 초반 『개벽』지의 ‘정신·민족성 개조론’ 연구」, 『상허학보』, 6집(상허학회, 2000), 221, 228쪽.

주도층이 가진 민족인식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김정인은 『개벽』에는 자치도 마다하지 않고 민족적 중심세력의 작성을 강조하는 민족담론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합일·연대에 주목하는 민족담론이 공존했다고 하면서,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후자에 속한다고 보았다.⁵⁾ 그러나 김정인은 당시 『개벽』에 실린 적극적 정치세력화 요구가 천도교의 정치세력화를 대변했다는 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도,⁶⁾ 민족주의·사회주의를 조화·절충하는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수사(修辭)만 가지고 이 글이 민족주의·사회주의의 ‘합일·연대’를 지향했고 천도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동향과는 별개로 본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최수일은 『개벽』의 ‘절충’적 방법과 관련하여 민족 인식을 거론했다. 그는 『개벽』 주체들이 전반부에는 ‘개인과 사회’를, 후반부에는 ‘민족과 계급’을 절충·타협하고자 했다고 보았다.⁷⁾ 이러한 절충적 방법은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고 했다. 그의 연구는 『개벽』의 전·후반부 논조 변화를 ‘절충’이라는 키워드로 포착함으로써 『개벽』을 일관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개벽』의 일관된 파악에 치중한 나머지, 정세의 변동에 따라 『개벽』의 주된 논조가 문화담론, 민족담론, 계급담론으로 계기적으로 변동해 나갔던 양상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따라서 범인간적 민족주의 단계가 가진 중요성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허수는 『개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표지, 목차 공간, 그리고 중심 논설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벽』을 1호(1920.6)~30호(1922.12), 31호(1923.1)~47호(1924.5), 48호(1924.6)~72호(1926.8)의 세 시기로 구분했다.⁸⁾ 그에 따르면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두 번째 시기의 출발점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그것이 창간 초기부터 억제되어 오던 정치성이 급격히 표출된 시점과 일치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조작 및 대내외적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병행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발표는 『개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⁹⁾ 허수의 연구는 『개벽』에 대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분

5)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외), 앞의 책, 257쪽.

6) 위의 논문(2007), 256~257쪽.

7) 崔洙逸,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2002), 102쪽.

8) 許洙,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62집(대동문화연구원, 2008a), 368~370쪽.

석 시각을 제시했고,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재환기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 시각을 『개벽』의 민족 인식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상의 연구 현황을 고려하면서 『개벽』의 민족인식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치중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운동 전개와 자치운동 모색 단계에 각각 상응하는 『개벽』의 핵심 입장을 사람성주의(사람性主義)와 범인간적 민족주의로 설정하고 양자를 각각 ‘문화주의의 소개와 사람성주의의 형성’, ‘민족성 개조 논의의 소개와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형성’이라는 계기적 변동의 틀로써 파악하고자 한다.¹⁰⁾ 둘째, 국면별 『개벽』의 주된 입장을 그 주도층이 속한 천도교청년당의 입장으로 환원하거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일반의 동향으로 해소시키지 않고 『개벽』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벽』의 지향은 『개벽』 매체가 가져야 할 종합월간지로서의 포괄적 역할과 『개벽』 주도층이 가진 ‘종교적 이상주의(宗敎的 理想主義)’가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¹¹⁾

이상의 서술 방향에 따라 본 논문 2장에서는 『개벽』의 문화운동 전개에 상응하는 사람성주의 단계를 『개벽』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문

9) 許洙, 위의 논문(2008a), 368쪽.

10) 박찬승은 ‘부르주아 우파의 실력양성운동’이라는 범주 아래에 문화운동 단계와 자치운동 단계를 구별하여, “문화운동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치운동을 전개”했다고 보았다.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25쪽. 김명구는 이런 통설의 이해방식을 비판하면서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의 민족운동론을 ‘문화주의’로 규정하고 정세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운동론의 변동을 ‘신문화건설론→물산장려론→자치론’으로 설정한다. 金明久,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 계열의 민족운동론: 《동아일보》 주도층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호(2002년 봄호), 166쪽. 김형국은 박찬승의 논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면서도, ‘신문화건설운동은 정치운동의 기반 마련을 위한 운동이었다’고 하여 김명구 보다도 문화운동과 자치운동의 유기적 연결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있다. 김형국, 「1920년대 한국 지식인의 사상분화와 민족문제 인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5~6쪽. 이상의 연구는 문화운동과 자치운동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운동 주체의 측면에서는 ‘부르주아 우파’(박찬승, 김명구) 및 ‘문화주의자’(김형국)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김형국, 위의 논문, 4쪽 참조). 본 논문은 『개벽』의 경우, 문화운동과 자치운동 단계를 구분해서 보는 박찬승의 관점을 취하면서도, 『개벽』이 ‘부르주아 우파’나 ‘문화주의자’ 일반으로 분류되지 않는 독자적 지향을 지녔다고 보는 입장에서 서 있다.

11) 이러한 문제의식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허수의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許洙, 앞의 논문(2008a), 355~356쪽.

화운동 비판기에 대두한 민족성 개조 논의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개벽』의 정치적 지향 속에서 발표되는 과정과 그것의 내용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개벽』 초기의 ‘매체 전략’과 ‘사람성주의’

3·1운동으로 집결된 민족운동의 물줄기는 다시 갈라져 흐르기 시작했고, 국내에선 신지식층이 주도하는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 6월 창간된 『개벽』은 《동아일보》와 함께 문화운동의 중심에 서서 청년회운동, 신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을 이끌어 나갔다.¹²⁾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 차상찬 등 천도교청년회 멤버가 주도한 『개벽』은 1910년대를 통해 정비해 온 천도교 교리와 교단 조직에 기반을 두면서도, 사회 개혁과 민족적 이익에 복무하는 계몽적 종합월간지를 지향했다.

그런데 『개벽』이 ‘잡지계의 패자(覇者)’로 군림하며 만 6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개벽』 주도층이 자신들의 ‘종교성’과 ‘정치성’을 최대한 자제한 대가였다. 『개벽』은 총독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창간되었으며,¹³⁾ 일반 독자와의 관계에서는 주도층들이 가진 종교적 색채를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조선사회의 ‘공기(公器)’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⁴⁾ 그러나 『개벽』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문화운동의 중심 기관으로서 조선 사회의 계몽에 앞장섰다. 동학의 창도 이래 이어온 ‘후천개벽’과 ‘지상천국’의 종교적 이상주의는 『개벽』이 가진 계몽적 열정의 원천이 되었고, ‘세계개조·사회개조’를 부르짖는 당시의 사조에 급속히 공명(共鳴)하게 했다. 또한 그러한 종교적 이상주의는 종종 주어진 한계 너머까지 분출하여 강한 정치성을 띠게 되면서 빈번한 기사 삭제와 압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관상 상충되거나 복잡한 논조의 기사를 실기도 했던 『개벽』은

1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307쪽; 박찬승, 앞의 책, 167쪽.

13) 『개벽』은 “종교, 학술, 문교(文教)에 관한 것으로 국한” 되었고, “시사(時事)에 대한 접근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김정인, 앞의 논문(2007), 238-239쪽.

14) 許洙, 앞의 논문(2008a), 380~381쪽 참고.

서로 다른 층위를 가진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선 『개벽』은 조선 사회의 일반적인 동향이나 대내외적 시사 정보를 파악, 소개하면서 간단한 비평을 덧붙이는 보도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 기능은 『개벽』이 계몽 활동에 필수적인 대내외 정세와 정보를 폭넓게 취재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개벽』 주도층의 성향이나 주된 논조와는 관계없이 사회 일반의 동향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했다. 한편, 『개벽』은 조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계몽적 기능도 수행했다. 이 기능은 『개벽』이 수집·소개하는 대내외적 정보를 일정한 방향, 예컨대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개조 방향으로 수렴하고 의미부여하는 일이었다.

『개벽』이 창간 직후 문화운동의 선전에 치중하면서 청년회 운동 및 청년문제,¹⁵⁾ 신구사상의 충돌,¹⁶⁾ 교육 및 노동계의 사회운동 동향,¹⁷⁾ 부인 및 여성해방 문제,¹⁸⁾ 구관습 타파¹⁹⁾ 등 사회적 현안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주로 보도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돈화나 김기전이 문화운동의 플랜을 제시하면서 각각 ‘도시 중심주의’ 및 ‘농촌의 개선’을 주장한 것이나,²⁰⁾ 양자가 중심이 되어 서구 개조사상을 소개하고 그것을 천도교의 인내천주의 기반 위에서 결합하여 ‘사람성주의’를 형성해 나간 것²¹⁾은 계몽적 기능에 해당했다. 문화운동의

-
- 15) 李敦化, 「최근 朝鮮에서 起하는 各種의 新現象」, 《開闢》, 1호(1920. 6); 白頭山人(이돈화), 「一般의 期待下에 立한 二大青年團體」, 《開闢》, 3호(1920. 8); 李敦化, 「朝鮮青年會聯合會의 成立에 就하여」, 《開闢》, 7호(1921. 1); 尹益善, 「青年團體에 對한 나의 要求」, 《開闢》, 8호(1921. 2); 滄海居士(이돈화), 「就職難을 如何히 解決할가」, 《開闢》, 8호(1921. 2).
- 16) 吳台煥, 「急變하여 가는 新舊思想의 衝突」, 《開闢》, 1호(1920. 6); 金小春(김기전), 「長幼有序의 未弊, 幼年男女의 解放을 提唱함」, 《開闢》, 2호(1920. 7); 滄海居士(이돈화), 「家族制度의 側面觀」, 《開闢》, 3호(1920. 8).
- 17) 李敦化, 「最近 朝鮮社會運動의 二三」, 《開闢》, 2호(1920. 7); 朴達成, 「世界와 共存키 爲하여 教育問題를 再擧하며 爲學 書堂改良을 絶叫함」, 《開闢》, 5호(1920. 11).
- 18) 妙香山人(김기전), 「朝鮮女子의 今後行路」, 《開闢》, 3호(1920. 8).
- 19) 猪巖(이돈화), 「祭祀問題를 機會로 하여 靈魂問題를 一言하노라」, 《開闢》, 5호(1920. 11); 姜仁澤, 「나의 본 朝鮮習俗의 二三」, 《開闢》, 5호(1920. 11); 一記者, 「迷信의 감투를 벗으라」, 《開闢》, 7호(1921. 1).
- 20) 李敦化, 「朝鮮新文化 建設에 對한 圖案」, 《開闢》, 4호(1920. 9); 金起瀾, 「農村 改善에 關한 圖案」, 《開闢》, 6호(1920. 12).
- 21) 본 논문에 나오는 사람성주의 형성 및 성격에 관해서는 허수의 다음 연구를 참고했다. 허수, 「1920년대 전반 이돈화의 개조사상 수용과 ‘사람성주의’」, 임경석·차혜영(외), 앞의 책, 179-231쪽.

제반 양상을 순발력 있게 소개하고 이에 개입해서 발언함으로써 잡지 매체로서 『개벽』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개벽』 주도층의 가치관이 투영된 사회개조의 이론과 방향성을 마련해 나갔던 것이 초창기 『개벽』이 가진 ‘매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람성주의’는 이돈화 개인의 이론적 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운동기 『개벽』의 논조를 대표하는 중심이념이라 할 만하다. 그 형성과정에서는 동학의 사상적 전통 위에서 일본의 현상즉실재론(現象即實在論) 철학과 문화주의 철학,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의 사회개조론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룬 것은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와 문화주의 철학의 결합이었다. 이돈화는 문화주의 철학 중에서 인격 중심주의적 경향에 주목하면서도 칸트 철학에서부터 유래하는 난해한 인식론상의 철학적 논의를 단순화해서 실용적으로 수용했다.²²⁾ 이런 방식은 철학을 비롯하여 근대 학문에 대한 기반이 부족했던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개벽』 주도층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결과였다. 또한 서구 사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수준이 낮았던 사실과도 밀접하게 연동된 것이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일본의 문화주의 사조는 『개벽』에 독특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문화주의 철학에 담긴 ‘理想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사람성’ 개념으로 치환되어 이 시기 『개벽』의 문화운동론에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당시의 『개벽』 기사를 관통하는 입장은 다름 아닌 ‘사람 중심주의’였는데 이러한 ‘사람 중심주의’적 지향은 이돈화의 ‘사람성주의’에서 논리화되고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개벽』의 문화운동에 중심이념이 된 것은 일본의 문화주의나 천도교의 인내천주의라기 보다는 ‘사람성주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1920년대 초 문화운동의 중심이념을 ‘문화주의’로 보는 입장이 다수이지만,²³⁾ 이러한 입장의 경우, 《동아일보》와 『개벽』의 논조 및 지향이 가진

22) 일본 문화주의 철학의 대표자 쿠와키 겐요쿠(桑木巖翼)는 서구 근대 존재론의 이원론적 토대 위에서 있으면서도 ‘자연(객관)과 이상(주관)’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일원적으로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칸트 철학의 전통에서 있었다면, 이돈화는 범신관적 실재론의 바탕 위에서 ‘자연과 이상’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일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내용은 허수의 다음 연구를 참고할 것. 허수, 위의 논문(2007), 202~206쪽.

차이에 별로 주목하지 않은 채 주로 《동아일보》 세력의 지향을 부르주아 우파 전체의 입장으로 일반화시켜 파악한 측면이 크다.²⁴⁾ 둘째, 문화운동의 중심이념을 ‘문화주의’로 보는 입장들은 그 내부에서의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과 달리 문화주의가 ‘민족주의’와 친연성을 가졌다고 본다.²⁵⁾ 이러한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서,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볼 때 『개벽』

-
- 23) 이지원과 김명구, 김형국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지원은 “1920년대 신문화운동이 일본의 문화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근대자본주의 신문화 건설을 추구한 것”이라 보았다.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해안, 2007), 188~203쪽. 김명구는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의 민족운동론을 이해하는 근본개념으로 문화주의를 제시”하고, 《동아일보》의 문화주의가 “전반적인 부르주아적 시민사회 건설을 지향했으며, 정치적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金明久, 앞의 논문, 165~166쪽. 김형국은 문화주의를 “1920년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전개하였던 문화운동의 이념 혹은 사상적 배경”으로 보았다. 김형국, 앞의 논문, 3~5쪽. 한편, 이러한 경향과 다른 견해를 가진 연구자로는 손유경, 최수일 등이 있다. 손유경은 문화운동의 주도이념을 ‘니체의 역만능주의, 강력주의 사조’로 보았다. 손유경, 『『개벽』의 신칸트주의 수용 양상 연구』, 『철학사상』, 20호(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5), 100쪽. 『개벽』 전체의 중심입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최수일은 문화주의나 사회주의 보다는 양자를 포괄하는 개조론을 더 중요시했다. 崔洙逸, 앞의 논문(2002), 104쪽.
- 24) 식민지 시기 부르주아 우파의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박찬승의 연구로서, 그는 문화운동의 이론적 기둥을 ‘신문화건설·실력양성론’과 ‘정신개조·민족개조론’의 두 계열로 나누어 설명했다. 전자의 계열에 대해서 그는 ‘신문화건설’과 ‘실력양성론’이 미묘한 관계에 있음을 주목하면서, 특히 《동아일보》에서 1920년에 거의 동일한 논리를 갖고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했던 양자는 1921년에 들어서면서 서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결국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실력양성론의 입장이 전면화한다고 보았다. 초기 문화운동에서 실력양성론을 설명할 때 그는 주로 《동아일보》에 국한해서 거론하는데, 이는 그가 『개벽』과 《동아일보》 간에 논조상의 차이가 있음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두 이론적 기둥 가운데 후자의 계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박찬승은 그것이 일본 문화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설명에는 대체로 『개벽』의 기사를 많이 인용했다. 박찬승, 앞의 책, 197~217쪽. 물론 박찬승은 두 매체가 가진 입장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며, 실력양성론과 문화주의라는 다소 상충되는 입장을 모두 문화운동의 이론적 기둥으로 거론한 셈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물론 당시 문화운동이 가진 복잡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 매체의 차이나 두 ‘이론적 기둥’ 사이의 주종관계 설정을 불분명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후 논자들이 그의 논지를 독해(讀解)하는 데 일정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예컨대 논자에 따라 문화운동의 중심 이념을 문화주의로 독해하는가 하면, 이와 달리 실력양성론으로 독해하기도 했다.
- 25) 김형국은 한국의 문화주의가 일본의 그것과 달리 민족담론과 결합했다고 했다. 김형국, 앞의 논문, 18쪽. 최수일도 한국의 문화주의가 민족주의의 틀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崔洙逸, 앞의 논문(2002), 102쪽. 한편 이와는 초점이 좀 다르지만, 이경돈은 『개벽』에 존재했던 ‘실력양성론’과 ‘문화주의’의 대립은 ‘근대화 담론의 방법론적 차이’에 불과한 대립이며, 더 근본적인 것은 ‘근대

에서 ‘사람성주의’가 민족 담론과 결합하는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문화운동 비판과 ‘민족성 개조’론

『개벽』에게 1921년 11월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한 달이었다. 『개벽』의 문화운동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글이라 할 ‘사람성주의’가 『개벽』 11월호에서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었다.²⁶⁾ 국내 문화운동의 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 워싱턴회의(일명 태평양회의)도 이 달에 개최되었다. 또한 비록 이듬해 5월에 발표되었으나 이광수가 워싱턴회의의 개최에 즈음해서 『민족개조론』을 집필한 때가 바로 이 달이었다. 이 무렵부터 『개벽』에서는 민족 담론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리기 시작해서, 1923년 초에는 『개벽』의 민족 인식을 대표하는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발표로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간에 민족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 『개벽』의 논조가, 그 이전의 문화 담론 중심이나 1924년 무렵 이후의 사회주의적 계급 담론 중심의 논조와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시기를 2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장에서는 1921년 11월 무렵부터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발표되기 직 전까지의 민족 논의를 『개벽』의 독자적인 민족 인식이 제시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논의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논의의 전개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워싱턴회의는 미국·일본·영국 사이에 태평양에서의 군비축소 문제, 중국에서의 이권조정 문제 등을 주된 의제로 했다. 이 회의가 개최된다는 예고가 1921년 7월경 발표된 후 일부 한국인들은 기대감을 갖고 이 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한국 문제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아서 한국인들은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²⁷⁾ 당시 국내에서는 정의, 인도, 개조의 이상주의적 기조 속에 뭉뚱그려 있던 세 경향 중에서 한편에서는 강력

화 담론과 민족 담론의 착종·대립”이었음을 강조했다. 이경돈,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 23호(수선사학회, 2005), 33쪽.

26) 李敦化, 「時代精神에合一된 人間性主義」, 《開闢》, 17호(1921. 11).

27) 박찬승, 앞의 책, 173~175쪽.

주의에 기반한 ‘실력양성론’이 세력을 얻어갔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적 경향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위성토회의의 결과로 두 세력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으며,²⁸⁾ ‘김윤식사회장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22년 4월 조선청년회연합회가 분열되는 등 문화운동 진영은 이념에 따라 분리되어 갔다.²⁹⁾ 사회주의자들은 문화운동의 운동방향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개벽』에서도 그간의 문화운동이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글이 많이 실렸다. 김기전은 한국 개조운동이 미약하게 된 2대 원인을 ‘주동자의 탐구없는 충동’과 ‘군중의 미자각(未自覺)’에서 찾았다.³⁰⁾ 이러한 문제의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청년회 조직과 강연회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기전, 박달성 등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청년회에서 역량있는 인물이 부족했던 결과 “거짓과 허위 아래에서 과벌을 짓고, 서로 다투며, 허황됨이 많이 생겼다”고 꼬집었다.³¹⁾ 강연회의 경우에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여자나 중학교 학생이 몇백 몇천의 군중 앞에서 일반의 각성을 절규”했던 문제점이 있었으며,³²⁾ 여러 청년회, 강연회 단체 등이 본회에 수십 차례씩 재정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주최자와 후원자가 서로 힘든 상황에 처”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강연이나 연극을 후원측에 의뢰하려면 당초 행사를 시작할 생각부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³³⁾

이처럼 기존의 문화운동에 대한 『개벽』의 비판은 운동의 ‘주체’와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청년회 비판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강연회 비판은 후자에 해

28) 위의 책, 176쪽.

29) 위의 책, 205쪽. ‘김윤식사회장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의 다음 두 연구를 참고할 것. 임경석, 「1922년 상반기 제 서울 사회단체들의 분규와 그 성격」, 『史林』, 25호(수선사학회, 2005), 211~240쪽; 박종린,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42~56쪽.

30) 金起瀾, 「社會의 實相과 및 그의 推移에 着目하라」, 《開闢》, 11호(1921. 5), 4~5쪽.

31) “相當한 人物을 缺한데서 그 弊ㅣ 不少하니 즉 鈞名式 假意下에서 便黨, 紛爭, 浮虛가 만히 생겨 有名無實, 龍頭蛇尾, 朝起暮消의 慘劇이 만호며 財政難으로 인하여 하고저 하는 일, 하던 그 일까지 中途에 止하야 互相觀望 仰天長嘆, 「돈아 돈아」의 悲鳴을 吶號함이 此ㅣ 現在 朝鮮青年會 中 大概의 内幕임은 누구나 共和하는 바입니다.” 朴達成, 「回顧 夏路七千里」, 《開闢》, 16호(1921. 10), 42~43쪽.

32) 金起瀾, 「青天白日下에서 이 적은 말을 敢히 여러 兄弟에게 들임」, 《開闢》, 14호(1921. 8), 16쪽.

33) 朴達成, 「回顧 夏路七千里」, 《開闢》, 16호(1921. 10), 44쪽.

당했다. 특히 후자의 강연회 문제는 결국 엘리트가 민중을 만나는 방식과 관계 깊은 사안이기도 했다. 그래서 『개벽』은 “신문화 건설을 부르짖는 소리가 민중에게 얼마나 철저했으며, 개조·창조의 선전은 일반에게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자문하면서,³⁴⁾ 역대의 문화운동을 민중과의 연결 여부로 평가했다.³⁵⁾ 『개벽』의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의 문화운동이 선전에 치중했지만 이제부터는 실행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났다.³⁶⁾ 《동아일보》측이 주도하던 교육 및 산업진흥 활동에 『개벽』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³⁷⁾

그러나 적어도 1922년 말까지 『개벽』은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기 보다는 ‘민족성 개조’를 비롯한 민족 담론의 소개와 전파에 치중했다.³⁸⁾ 이런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개벽』 주도층은 민족 개조에 관한 이광수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광수의 논설은 『개벽』 14호에 「팔자설을 기초로 한 조선민족의 인생관」으로 운을 댄 뒤, 『개벽』 17호부터 21호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소년에게」가 연재되었다. 또한 연이은 『개벽』 22호에서는 르봉의 민족심리학 중요부분을 번역한 「국민생활에 대한 사상의 세력」이 발표되었다. ‘노아(魯啞)’·‘노아자(魯啞子)’라는 필명 아래에서 일련의 연재 논설을 통해 개진되었던 이광수의 민족 개조 구상은 드디어 『개벽』 23호에 가면 ‘이춘원(李春園)’이라는 이름 하에서 「민족개조론」으로 표방되었다.³⁹⁾ 이광수가 주장한 ‘민족개조’의 요점은 ‘중심 인물의 조직적 활동을 통한 민족성 개조’에 있었다. 중심 인물과 조직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이광수의 입장은, 기존의 문화운동이 가진 문제점을 운동 주체와 운동 방식의 두 측면에서 진단하던 『개벽』 주도층의 입장과 일맥상통했다.

34) (필자미상), 「民族興替의 分岐點」, 《開闢》, 20호(1922. 2), 1쪽.

35) (필자미상), 「文化 運動의 昔今」, 《開闢》, 21호(1922. 3), 2쪽.

36) 金起瀾, 「우리의 社會의 性格의 一部를 考察하여서 同胞兄弟의 自由處斷을 促함」, 《開闢》, 16호(1921. 10), 4쪽.

37) (필자미상), 「새로운 局面은 얼니려 하도다」, 《開闢》, 15호(1921. 9).

38) 물론 『개벽』에서 민족에 관한 논의는 초기에도 발견된다. 그러나 『개벽』 주도층이 민족 담론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지속시킨 시점은 1921년 말~1922년 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정인, 앞의 논문(2007), 254쪽.

39) 민족개조론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본 논문에서 생략한다. 「민족개조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현주의 다음과 같은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 김현주, 「논쟁의 정치와 「민족개조론」의 글쓰기」,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2)』(역사비평사, 2006), 308~333쪽.

『개벽』에 이광수의 논설이 활발하게 실린 데에는 이런 이유가 컸다고 생각된다.

둘째, 『개벽』 주도층은 민족성개조에 관한 이광수의 견해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족성개조에 관한 생각을 독자적으로 개진했다. 「민족개조론」이 실린 『개벽』 23호에는 『개벽』 편집인이자 천도교의 간판 이론가였던 이돈화의 논설 「공론(空論)의 인(人)으로 초월하여 이상(理想)의 인(人), 주의(主義)의 인(人)이 되라」도 실렸다. 이 글에서 이돈화가 전개한 민족성개조 논의는 다음 두 명제로 압축된다.

조선인으로서 사회성을 완전히 하려면 먼저 민족성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민족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족성의 근본 정신되는 민족적 공통 생명철리(生命哲理)에 집착해야 한다.⁴⁰⁾

첫째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돈화의 ‘사회성’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돈화는 ‘사람성’에는 ‘개성’과 ‘사회성’이 함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개성’은 ‘선천적 유전과 후천적 감수성이 결합’한 산물이며, 각 개인의 개성은 ‘얼굴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각각 특수한 성격’을 가졌다. 이에 반해 ‘사회성’은 ‘동물적 성(性)을 초월한 것이며 사람성(사람性)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미점(美點)’으로서 ‘인류 결합의 핵심(眞諦)’으로 설명되었다.⁴¹⁾ 그리하여 사람은 개성을 고집할수록 고립적·편벽적으로 되며, 그것을 연마할수록 개성 속에 포용되어 있는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했다.⁴²⁾

이렇게 본다면 이돈화는 개체나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중하는 것을 ‘개성’으로 보고, 그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을 ‘사회성’으로 설정한 듯하다. 그렇다면 위의 첫째 명제는 ‘조선 사람이 개인의 제약을 넘어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미점(美點)인 사회성을 완전하게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성의 향상에서 시작해야 한다’로 이해된다. 그 의미를 부연하자면 ‘인류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을 완전히 발현시켜야 하는데, 사회성을 발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는 민족차원, 즉 민족성의 향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민족성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답은 ‘민족성의 근본 정신

40) 李敦化, 「空論의 人으로 超越하여 理想의 人, 主義의 人이 되라」, 《開闢》, 23호(1922. 5), 11~12쪽.

41) 夜雷(이돈화), 「朝鮮人과 社會性的의 如何」, 《天道教會月報》, 146호(1922. 11), 15쪽.

42) 夜雷(이돈화), 「朝鮮人과 社會性的의 如何」, 13쪽.

을 중시해야 한다'는 둘째 명제에 나타나 있다. 둘째 명제의 '민족적 공통 생명철리'와 관련하여, 이돈화는 '우주의 최고생명이 인류의 생명으로 나타났고, 인류의 생명이 흘러 조선민족의 생명이 되었다'는 강한 유기체적 민족관을 피력했다. 나아가 '민족적 생명의 골수(骨髓)와 혈액(血液)이 영원히 자자손손 유전(流傳)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조선사람 개개인은 이처럼 자신이 민족적 대생명 속의 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각자의 활동은 '영구적인 근기(根氣)와 정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개개인은 '영원한 개조와 원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돈화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생명무궁주의(生命無窮主義)'가 민족개조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⁴³⁾

이돈화의 민족개조 논의를 이광수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둘 다 기존의 문화운동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점, 그리고 민족개조의 문제를 '민족성의 개조'라는 추상적·도덕적 차원의 개조를 중심에 두는 점 등에서 서로 닮았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두 사람의 논설 발표 시점이나 내용 등과 함께 고려할 경우, 민족개조에 관한 이돈화의 논의는 이광수의 논의에서 영향 받은 바 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논의에는 그에 못지않게 차이점도 컸다. 차이점은 '민족성'의 위상과 민족개조의 구체안에서 두드러졌다. 르봉의 민족심리학에 근거를 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소수 선각자에 의한 점진적·조직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 세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이돈화의 민족개조는 그 위상 자체가 '사회성의 향상과 인류 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출발점에 그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생명'이라는 보편적 실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 두 사람 모두 '민족'을 현실 정치의 구체적인 장소로 인식하긴 했으나 이돈화의 민족 인식은 종교적 보편주의에 의해 견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이광수의 경우 그러한 측면은 약했다. 그는 '사회는 종교로만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소교인이나 천도교인은 사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반(反)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⁴⁴⁾

지금까지 이광수, 이돈화의 '민족성 개조'를 중심으로, 문화운동 비판기에 전개

43) 李敦化, 「空論의 人으로 超越하여 理想의 人, 主義의 人이 되라」, 16-17쪽.

44) 魯嘸(이광수), 「中樞階級과 社會」, 《開闢》, 13호(1921. 7), 27쪽.

된 『개벽』의 민족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시기 이돈화의 민족성 개조가 『개벽』의 민족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의 논의는 이광수 등의 민족성 개조 논의를 수용하면서도 종교적 보편주의를 가미해서 독자적인 의미부여를 하고자 했지만, 아직은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탈정치’를 선언했던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달리 그의 논의에는 당시 서로 대립하고 있던 민족주의 세력 및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태도도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이 시기 이돈화의 경우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로 경도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김윤식사회장 사건을 주시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의 여론 형성 방식이 공정함을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고,⁴⁵⁾ 같은 맥락에서 미숙한 청년이 여론의 탁류에 휩쓸리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⁴⁶⁾ 이는 ‘청년의 신각성과 신활동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던 초기의 논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⁴⁷⁾ 여기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그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그의 민족성개조 논의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기 『개벽』의 전체적인 논조, 그리고 이돈화의 각 논설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태도,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양 방향의 거리두기는 범인간적 민족주의 단계에 가서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IV. 정치운동 지향과 ‘범인간적 민족주의’

이 장에서는 1923년 1월부터 1924년 사회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시점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개벽』의 범인간적 민족주의 및 이와 관련된 논설

45) “近者-社會葬 문제로써 사회의 여론이 起할 際에 그 여론으로써 이미 여론의 목적인 바 사실이 既達하였슴에 不拘하고 引하여 其勢를 乘하여 사회의 公器되는 某 신문의 非買同盟會 又は 매장 운동이라는 극단의 행위를 감히 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면 이는 당초에 公으로써 표방한 여론이 돌리어 私로써 종결을 맺고져 하는 실수가 아니리오.” 李敦化, 「輿論의 道」, 《開闢》, 21호 (1922. 3), 10~11쪽.

46) 李敦化, 「輿論의 道」, 12쪽.

47) 白頭山人(이돈화), 「一般의 期待下에 立한 二大青年團體, 前途의 希望이 多大한 青年會聯合期成會 青年團體 中 異彩를 放하는 天道教青年會」, 《開闢》, 3호(1920. 8), 57쪽.

을 분석하고자 한다. 1923년 1월부터 『개벽』 주도층은 문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조선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선 문화의 기본조사에 착수했고, 1922년 9월에 이루어진 총독부의 정치기사 게재 허용조치를 계기로 ‘주의적(主義的) 단결’, 즉 민족적 중심세력의 단결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 ‘주의적 단결’ 주장은 1923년 초부터 개벽사 사우제(社友制)의 실시로 가시화되었다.⁴⁸⁾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실천을 뒷받침하고 총괄하는 조직적 중심으로, 당(黨)적 조직을 표방한 천도교청년당이 건설되었다.⁴⁹⁾

이러한 움직임은 『개벽』에도 반영되어 『개벽』의 표지와 내용 구성에서 이전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1923년 1월의 『개벽』 제31호 표지에는 동북아시아 지도 위에 ‘의재신원(意在新元) 계해년(癸亥年) 특대호(特大號)’라 되어 있고, 제호인 ‘개벽(開闢)’ 글자 위에는 ‘창조(The Creation)’를 뜻하는 에스페란토어 ‘LA KREADO’가 처음 선보였다.⁵⁰⁾ 이 ‘창조’는 그 해 7월호까지 연속해서 나타나고, 9월호 및 1924년 1월호 표지에도 나타났다. 이 기간은 개벽사 주최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선문화기본조사’가 시작되어 그 결과물이 『개벽』 4월호부터 ‘도호(道號)’로 발행되는 등, 『개벽』 주도층과 천도교청년회·천도교청년당 조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와 겹쳤다.

『개벽』 주도층은 이러한 상징적 작업과 현실적 활동을 ‘범인간적 민족주의’라는 일종의 정치사상으로 수렴하여 제기했다.⁵¹⁾ 여기에는 『개벽』 주도층의 ‘민족’ 인

48) ‘사우제’란 “개벽사의 민족운동에 동감하는 개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직화시킨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사우모집사업”을 가리켰다. 최수일, 『『개벽』 유통망의 현황과 담당층, 임경석·차혜영(외), 앞의 책, 29쪽 각주 19.

49) 地上天國의 건설, 이것은 그 당의 主義요 人本性自然에 드러맞는 새 체도의 실현, 事人如天의 정신에 드러맞는 새 논리의 수립, 이것은 그 당의 綱領이오. 당의 결의에는 절대로 복종할 것. 이것은 그 당의 約束이다. 小春, 「思想和 傾向」, 《開闢》, 39호(1923. 9), 128쪽 참고.

50) 당시에는 에스페란토어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다. 당시 『開闢』에는 김억의 ‘에스페란토어 自修室’이 연재되었고, 일본의 대표적 잡지 『改造』에서도 에스페란토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런데 『改造』의 경우 표지가 ‘개조’의 일본식 발음을 영어로 표기한 ‘KAIZO’라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開闢』의 표지가 에스페란토어로 장식된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여기에는 地上天國을 목표로 하는 『開闢』 주체들의 종교적 이상주의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스페란토어에 관한 『開闢』의 언급은 「一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실린 ‘注意할만한 世界語의 流行’을 참조할 것. (필자미상), 「一瞥」, 《開闢》, 37호(1923. 7), 75~76쪽.

51) 필자미상으로서 1923년 벽두에 간판논설로 발표된 이 글은 이돈화의 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식이 잘 드러나 있었다. 그들은 ‘민족적 사상’으로는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명백히 주장했다.⁵²⁾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핵심주장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세계를 국가단위에서 민족단위로 나아가게 하자. 둘째, 각 민족이 서로 도덕적 원조 하에 각자 성장을 수(遂)하자. 셋째, 현대의 가장 최선(最善)한 문화를 표준점으로 하고 세계 각 민족의 정도를 그 표준점의 수평선상으로 인상(引上)케 하자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앞서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사람성주의’와 가진 ‘연속·단절’의 양면적 관계부터 짚어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범인간적 민족주의에서는 사람성주의에서 활용된 도식, 즉 ‘정신/물질’ 및 ‘이기주의/이타주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이 이어지면서도,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개인’ 차원에서 ‘민족’ 차원으로 바뀐 차이를 보였다. ‘정신/물질’ 구분법은 ‘국가/민족’의 구분법으로 대체되었고, ‘이기주의/이타주의’의 조화는 ‘민족주의/인류주의’의 조화 문제로 대체되었다. 또한 ‘사람성주의’에서 개인 차원에서 거론되었던 ‘창조충동’이나 ‘引上의 평등’ 등은 범인간적 민족주의에서 ‘민족에 대한 도덕적 원조’나 ‘각 민족의 문화적 표준 제고’ 등으로 변모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에서 사람성주의의 기본 도식이 반복되면서도 그것이 이전과 달리 ‘민족’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이 단계에 와서야 『개벽』 주도층이 다른 논자들의 민족 논의를 게재하고 이에 영향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민족 담론을 생산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소민족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양자를 지양(止揚)한 제3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시 이돈화를 비롯한 『개벽』 주체들은 식민지 지식인의 입장에서 민족주의의 배타적 속성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족주의가 ‘자기의 민족만 시인하고 他민족을 멸시·배척’한 결과, ‘타민족의 생존권을 침해·약탈’한

같다. 내용 및 주요 개념이나 논리구조, 그리고 글의 비중 등으로 볼 때도 그러하거나, 나중에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그가 이전에 전개했던 자신의 개조관련 논의를 事後에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의 ‘3대개벽’론으로 정리하는 것에서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민족개벽’은 범인간적 민족주의 단계를, ‘정신개벽’은 사람성주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2)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開闢》, 31호(1923. 1), 8쪽.

다고 보았다. 그 대표적 예로, ‘식민지를 확장하여 타민족의 토착권을 침해하고, 자기 민족의 번영을 시도하는 근대 군국주의·제국주의의 발호(跋扈)’를 들었다.⁵³⁾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민족주의는 ‘이기주의의 확대’, 즉 ‘이기(利己)의 관념을 자기 일 개인으로부터 연장하여 민족이라는 자기의 종속(種屬)에 그 관념을 옮겨 놓은 것’이었다.⁵⁴⁾ 이러한 생각은 약소민족으로서 조선 지식인이 가진 자의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동학 및 천도교 사상에서 유래하는 종교적 보편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한 그들의 경계심이 곧바로 사해동포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다. 『개벽』 주도층은 기존의 민족주의가 가진 배타성을 지적하면서도,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인류주의가 약소민족의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빠트리지 않았다. 나아가 그들은 민족주의를 ‘이기적 사상의 결정(結晶)’으로 보고 ‘인류주의’를 ‘이타적 사상의 결정’으로 보았으나, ‘인습적 민족주의를 절대 배척하는 동시에 극단의 몰아적(沒我的)인 인류주의도 배척한다’고 했다.⁵⁵⁾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입장은 다음 대목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는 유래(由來)의 민족주의를 합시대적(合時代的)으로 개조하여 그 주의(主義)를 선(善)히 인류주의와 영합(迎合)할 포용성을 기르게 하고, 또 인류주의는 당분간 세계 각 민족을 단위로 하고 민족과 민족간의 권리 행복을 평균케 함이 인류주의 발전상 당연한 순서(順序)가 되리라.⁵⁶⁾

「범인간적 민족주의」 글 전체를 볼 경우 글 서두에서 ‘니체의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톨스토이의 인류주의’라는 대목도 나오지만, 논의의 중심은 민족주의와 인류주의의 대립에 맞춰져 있다. 특히 “근일 우리들의 조선 사상계에 잇서는 민족주의와 인류주의(사회주의)가 양양병립(兩兩併立)하야”(밑줄: 인용자)라는 표현을 고려할 경우,⁵⁷⁾ ‘인류주의’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민족주의와 대립·경쟁하고 있었던

53)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4~5쪽.

54)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4쪽.

55)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7쪽.

56)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7~8쪽.

57)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3쪽.

사회주의를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통해 『개벽』 주도층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입장을 각각 비판하면서 양자를 조화·절충하는 입장을 견지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요점’에서는 이런 점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대개 인류의 욕망은 무한하고 물질의 소유는 유한하거늘 무한한 욕망으로써 유한한 물질을 취코저 하면 세부득이(勢不得已) 타(他)의 이익을 침해케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에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민족으로써 타민족의 소유권 침해를 금지(防遏)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류의 무한한 욕망을 유한적 물질적 경쟁에 희생치 말고 무한(無限)한 창조적 생산에 용심(用心)하게 되면 인류는 스스로 각자의 행복하에 인도적 생활을 경영하게 될지니 이것이 범인간 민족주의의 요점이라. 즉 일민족(一民族)이 타민족의 소유를 침해치 말고 그 힘을 무한한 창조 충동의 방면으로 이용하여 자기 천연(天然)의 힘으로써 자기 생활의 힘을 조장케 하자함이라(밑줄: 인용자).⁵⁸⁾

밑줄 친 부분에서, ‘타민족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 것’이 주로 민족주의 비판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면, ‘유한한 물질적 경쟁’ 대신에 ‘무한한 창조적 생산에 용심하라’는 것은 대체로 사회주의를 겨냥한 비판이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주의 비판과 관련해서 위 인용문은 ‘창조충동’을 언급했는데, 이는 러셀의 사회개조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⁵⁹⁾

58)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9쪽.

59) 김기전은 버트란트 러셀의 사상을 『開闢』 제11호(1921. 5)에 소개했다. 또한 이돈화는 이 보다 앞서 『開闢』 10호에서 사람성주의를 설명하는 가운데 러셀의 창조충동론을 언급했다. 이돈화에 따르면 러셀은 모든 인류의 활동을 ‘충동에 歸케’ 했고 이 충동에는 ‘소유충동’과 ‘창조충동’이 있는데, ‘소유충동’에는 ‘蓄財, 권력, 전쟁’에 대한 것이, ‘창조충동’에는 ‘지식, 愛, 예술’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李敦化, 「사람性的 解放과 사람性的 自然主義」, 《開闢》, 10호(1921. 4), 21쪽).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허수의 다음 연구를 참고할 것. 허수, 「1920년대 초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양상: 형태적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7호(한국역사연구회, 2008b), 64~66쪽; 허수, 앞의 논문(2007), 206~207쪽.

V. ‘문화적 민족주의’의 천도교적 변용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토대로 『개벽』 정치사상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중립적 입지가 『개벽』이 가진 매체로서의 속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 둘째, 그러한 중립적 외관의 배후에 작동했던 현실적인 힘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상을 종합해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범인간적 민족주의’에서는 국제질서 속에서 약소민족인 조선 민족이 가야할 진로에 관한 추상적 언설이 중심이 되었다. 민족주의와 인류주의(사회주의)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양자의 조화를 지향한 것도 이러한 언설의 맥락에 놓인 것이었다. 실제 현실에서는 1922년 초 김윤식 사회장 사건을 필두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대립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개벽』의 기본적인 논조는 서로 대립하던 주요 정치세력의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동시에 양자를 포섭하는 입지를 취했다. 실지로 『개벽』 주도층이 이광수 등의 민족담론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1923,4년부터 계급담론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표하면서 이를 게재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사실을 실증한다.

현실 정치세력에 대한 이러한 거리유지는 『개벽』 매체가 지향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특성과 관계 깊었다고 생각된다. 『개벽』 매체가 사회적 공기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현실의 특정 정치세력이나 주도 담론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지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립적 입지는 동학·천도교 교리가 가진 ‘성신쌍전(性身雙全)’이나 ‘유불선 합일’ 등에 내재된 회통적 성격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개벽』 문학담론의 형성을 고찰한 김건우가, “『개벽』을 주도하던 천도교 청년 지식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당대 ‘지식 담론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힘을 천도교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1920년대에 『개벽』이 문학을 포함하여 ‘지식인 주체의 계몽 담론’을 대표적으로 매개하는 공간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는 이루어졌다”고 본 것은 정곡을 찌른 평가라고 생각된다.⁶⁰⁾

둘째, 『개벽』의 중립적 입지 배후에 작동했던 현실적인 힘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 논문 2장에서는 『개벽』이 ‘종교성’과 ‘정치성’의 표출을 최대한 자제한 대가로 탄생하고 존속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출발한 『개벽』은 1922년 하반기 총독부의 정치기사 허용조처에 따라 정치적 입장 표명과 함께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발표한 것이다. 나아가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발표는 정치적 중심세력의 형성 주장, 그리고 자치운동 모색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었다.⁶¹⁾ 따라서 『개벽』의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언설의 측면에서는 중립적이고 양자의 조화를 강조하는 외관을 취했으나, 현실에서는 천도교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분열·대립을 하고 있던 민족주의 운동세력과 사회주의 운동세력 각각을 양면 비판하는 성격을 가졌다.

특히 『개벽』 주도층들은 1923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유행에 대해 “사회주의적 기분 유행의 유일 원인은 독립심의 변태성, 즉 조선독립 희망에서 실망된 원기를 새로이 사회주의 상에 변태적으로 그 희망을 퍼게 된 것”이라고 하여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⁶²⁾ 그러나 사회주의 유물론이 러시아식 반종교운동의 영향을 받아 종교를 반대하는 파라면, 자신들처럼 종교적 혁명사상을 가진 천도교청년과는 ‘해석적 반대파’로서, ‘인습의 허위의 종교를 파괴하고 사람성 자유발달을 기하는 신종교운동을 기하는 자’로 자리매김했다.⁶³⁾ 자신들이 가진 천도교의 종교적 입지 위에서 사회주의와의 거리를 유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벽』 주도층이 공유했던 종교적 기반은 민족주의 세력뿐

60) 김건우, 「『개벽』과 1920년대 초반 문학담론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19호(한국현대문학회, 2006), 239쪽.

61) 1923~1924년의 자치운동 움직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찬승의 연구를 참고할 것. 박찬승, 앞의 책, 330~335쪽. 한편, 『개벽』 1923년 4월호에 발표된 ‘민족적 중심세력 형성’이라는 글은 1922년 초부터 1923년에 걸쳐 《동아일보》 계열이 자치운동과 관련하여 반복해서 강조한 ‘정치적 중심세력 형성’ 기사에 호응한 성격이 짙다. 천도교에서는 1923년 가을 무렵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측과 研政會를 조직하고자 활동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중심세력 결성과 관련하여 1923년 9월 천도교청년당을 결성했다.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229~230쪽.

62) (필자미상), 「激變 又 激變하는 最近의 朝鮮人心」, 《開闢》, 37호(1923. 7), 7쪽.

63) (필자미상), 「激變 又 激變하는 最近의 朝鮮人心」, 9~10쪽.

만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자신들을 차이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 차이화’ 방식은 어디로부터 연유하는 것일까. 이러한 방식은 가깝게는 ‘사람성주의’에서 구사된 ‘정신과 물질의 조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조화’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멀리 소급해 보면, ‘동학’의 성립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위기상황에서 민중종교로 탄생한 ‘동학’은 한편에서 그 신앙체계가 교조 최제우의 ‘시천주’ 종교체험과 ‘후천개벽’의 현실 변혁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성리학과 서학에 대한 이중적 차이화를 통해 형성해 나갔다. 즉, 동학 초기에 교조 최제우는 서학을 의식하여, “도(道)는 천도(天道)라 하나 학(學)은 동학(東學)이다. 하늘과 땅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西)를 어찌 동(東)이라 하며, 동을 어찌 서라 하겠는가”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성리학과 관련해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선성(先聖)이 가르친 바이요, 수심정기는 오로지 내가 다시 정하였다”고 했다.⁶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민족주의 정치세력 및 민족 담론에 대해서도 적극적 소개에 연이은 차이화를, 사회주의 정치세력 및 계급 담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방식의 대응을 초래하는 심층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개벽』이라는 매체의 표면에서는 여전히 이 시기에도 ‘종교성’이 잠재되

64) 삼암 표영삼, 『동학 1 : 수운의 삶과 생각』(통나무, 2004), 170, 194쪽. 표영삼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동학의 자기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운(水雲) 최제우는 1860년 4월(이하 음력)에 경주 용담에서 종교체험을 하고 이듬해 6월부터 거처를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유생들은 수운이 포교하던 신앙을 서학으로 몰아서 관의 탄압을 받도록 음해(陰害)하기 시작했다. 수운은 1861년 11월, 고향 경주를 떠나 약 2개월만인 1861년 12월 중순 경 전라도 남원에 도착했다. 1862년 1월, 남원 은적암(隱蹟庵)에서 그는 「논학문(論學文)」을 지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동학(東學)’이라고 불렀다. 그는 “동에서 태어나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천도라 하나 학은 동학이다. 하늘과 땅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西)를 어찌 동(東)이라 하며, 동을 어찌 서라 하겠는가”라고 했다. 나아가 서학에 대해서는 “한울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알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6월 초에 지은 「수덕문(修德文)」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선성(先聖)이 가르친 바이요, 수심정기는 오로지 내가 다시 정하였다’라고 했다(표영삼, 위의 책, 93~194쪽). 표영삼에 의하면 「수덕문」 집필의 목적 중 하나가 유생의 탄압을 완화시키는 데 있었고, 「수덕문」의 이 구절도 인의예지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맥락에 놓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 동학과 성리학의 가르침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표영삼도 “동학의 신념체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평등과 자유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봉건사회의 질서를 세우자는 데 목적을 둔 유도와 다르다”고 했다(표영삼, 위의 책, 195쪽).

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보았듯이 『개벽』 주도층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배타적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유물론과도 구별 짓게 한 핵심 요소는 천도교라는 종교적 기반이었다. 담론 차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천도교청년당이라는 천도교 청년조직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해 나갔다. 이처럼 『개벽』의 중립적 외관 이면에는 ‘천도교적 정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전개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그것이 제기된 컨텍스트적 맥락,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벽』이 가진 매체로서의 성격을 대표하는 중심이념으로서의 위상을 지녔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개벽』 발간 초기에 억압된 정치적 성향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개벽사의 조선문화기본조사와 사우제 등 구체적인 실천과 더불어 제기되었다. 그리고 천도교청년당의 조직과 활동은 그러한 활동의 정치적 구심체가 되었다. 텍스트 형식에서도 문화운동 단계의 ‘사람성주의’와 문화운동을 비판하면서 『개벽』에 적극 소개되었던 민족 담론이 결합한 것이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제 요소들은 일정한 층위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개벽』 주도층이 조선에서 정치적 중심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 그들이 염두에 둔 것은 1923년 9월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표방하며 조직된 천도교청년당 조직이었다. 청년당의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천국’은, 현실 정치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열·대립하던 조선의 정치세력을 조화·통일시키는 일원론적 원리에 해당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대외적으로 정치적 독립의 직접 달성 보다는 문화적·도덕적 차원에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세력의 이념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민족과 국가가 분리된 특수한 상황’인 식민지 하에서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는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⁶⁵⁾ 나아가 이러한 입장은 국가권력의

65)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식민지 시기 이광수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장동진의 다음 연구를 참고할 것. 장동진, 「식민지에서의 ‘개인’, ‘사회’, ‘민족’의 관념과 자유주의:

직접적·급진적 회복 보다는 민족 구성원이 당면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치 운동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그 통합의 원리를 ‘민족’ 개념이나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과 ‘계급’을 포괄하는 종교적 이상, 즉 ‘지상천국’에서 구했던 점이 달랐다. 이 점에서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이광수를 비롯한 부르주아 우파 일반의 민족 인식과 차이가 있었다. 단순히 분열과 대립을 통합하는 항목이 종교적이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러한 제3의 항목으로 민족 담론과 계급 담론을 포용하고 종합하려는 입지를 취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이런 입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뒤 시기부터 『개벽』에 사회주의적 계급 담론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때 여기에 『개벽』 주도층이 ‘사회주의 논설의 소개와 차이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⁶⁶⁾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벽』의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천도교적 변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본 논문은 ‘범인간적 민족주의’(汎人間的 民族主義)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성격을 『개벽』이 가진 매체로서의 성격과 관련시켜 고찰했다. 형성과정은 1921년 11월과 1923년 1월을 경계로 해서 ‘문화운동기’, ‘문화운동 비판기’, ‘자치운동 모색기’의 세 시기로 나누고, 시기별 『개벽』의 주된 논조를 각각 ‘사람성주의(사람性主義)’, ‘민족성 개조(民族性 改造)’ 논의, ‘범인간적 민족주의’ 논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가진 정치사상적 성격을 ‘문화적 민족주의의 천도교적 변용’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하에서는 본문의 논지를 요약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문화운동기 『개벽』의 보도 기사와 계몽 논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안창호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주의, 『한국철학논집』, 16집(한국철학사연구회, 2005).

66) 『개벽』에서 사회주의 기사의 소개 양상과 이에 대한 『개벽』 주도층의 대응 문제는 별도로 탐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관한 개략적인 연구사 정리는 허수의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許洙, 앞의 논문(2008a), 355~356쪽.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체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에는 『개벽』이라는 매체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 즉 『개벽』에는 한편으로 그 주도층이 가진 ‘종교적 이상주의(宗敎的 理想主義)’와 여기에서 비롯하는 강한 계몽적 열정이 이면에 깔려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총독부의 발행 허가과 폭넓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성향의 표출을 억제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벽』의 특성이 각각 계몽 논설과 보도 기사에 반영되었고, 주도층은 주로 보도성 기사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개입하는 한편, 계몽적 논설, 그 중에서도 방향제시형 논설을 통해 좀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문화운동의 논리를 마련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다. 사람성주의는 이러한 매체 전략의 산물로서 초창기 『개벽』의 ‘사람 중심주의’적 논조를 수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화운동기 『개벽』의 중심 이념에 해당했다.

3장에서는 문화운동 비판기 『개벽』에서 전개된 민족성 개조 논의를 분석하고 그것이 『개벽』의 민족 인식에서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1921년 11월 워싱턴 회의의 개최를 전후하여 문화운동이 가진 한계가 비판받기 시작했고, 문화운동 진영은 이념에 따라 좌우로 분화해 갔다. 『개벽』도 문화운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 논의를 중심으로 민족 담론의 소개와 전파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의 『개벽』 논조를 함께 고려해서 볼 경우, 이 시기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 논의는 『개벽』이 기획한 민족 인식의 공론화(公論化)에 그칠 뿐 『개벽』 주도층의 민족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이돈화가 천도교의 입장을 반영한 ‘生命論’의 바탕 위에서 민족성 개조 논의를 시도했다. 이돈화의 민족 인식은 생명론이라는 보편주의적 경향으로 견제되었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논의와 차이가 있었지만, 뒷시기의 범인간적 민족주의 단계에 비해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에 인식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면모를 보였다.

4장에서는 『개벽』의 독자적 민족 인식을 담은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제시된 사회·정치적 맥락, 그리고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개벽』에서 정치기사의 게재가 허용된 직후 조선문화기본조사(朝鮮文化基本調査)와 사우제(社友制) 실시 등의 구체적 사업과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그것은 민족적 중심세력의 필요성 주장, 1923년 9월의 천도교청년당 조직 등 천도교의 자치운동 모

색 움직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형식 면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사람성주의’와 3장에서 검토한 ‘민족성 개조’ 논의 단계를 결합한 것이었고, 내용 면에서는 약소민족의 입장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양자를 지양(止揚)한 제3의 입장을 표방했다.

5장에서는 2장~4장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우선, ‘제3의 입장’에 수반된 중립적 태도는 ‘사회적 공기(公器)’를 지향한 『개벽』의 매체적 특성에서 비롯한 결과였다. 『개벽』 주도층은 현실에서 대립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개벽』에 포괄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중립적 외관 아래에는 ‘천도교 중심주의’라는 정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개벽』은 당시 천도교단이 추진하던 자치운동 모색에 호응하여 민족주의·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적 중심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바, 이러한 중심세력에는 천도교 조직, 특히 천도교청년당이 상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즉, 그것은 민족의 문화적 발전과 정치세력의 이념적 통합을 추구한 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에 해당했으나, 통합 원리를 천도교 이념에 두었다는 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의 천도교적 변용’에 해당했다. 본 논문에서는 범인간적 민족주의와 자치운동의 연관성에 관해, 선행연구의 결론을 활용하는 데 그치고 시기적·논리적 개연성 이상으로 양자의 관계를 엄밀하게 논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본격적인 사료발굴과 검토 등을 통해 그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開闢》 31호, 1923. 1.

기타, 『開闢』·『天道教會月報』 소재 논설들.

金明久,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 계열의 민족운동론: 《동아일보》 주도층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호, 2002, 163~196쪽.

- 金正仁, 『日帝強占期 天道教團의 民族運動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김건우, 『『개벽』과 1920년대 초반 문학담론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19호, 2006, 223~242쪽.
-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235~264쪽.
- 김현주, 『논쟁의 정치와 「민족개조론」의 글쓰기』.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2)』. 서울: 역사비평사, 2006, 308~333쪽.
- 김현주, 『민족과 국가 그리고 ‘문화’: 1920년대 초반 『개벽』지의 ‘정신·민족성 개조론’ 연구』. 『상허학보』 6집, 2000, 213~244쪽.
- 김형국, 『1920년대 한국 지식인의 사상분화와 민족문제 인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종린,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 삼암 표영삼, 『동학 1: 수운의 삶과 생각』. 서울: 통나무, 2004.
- 손유경, 『『개벽』의 신칸트주의 수용 양상 연구』. 『철학사상』 20호, 2005, 81~106쪽.
-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2)』. 서울: 역사비평사, 2006.
- 이경돈,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 23호, 수선사학회, 2005, 27~59쪽.
-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서울: 혜안, 2007.
- 임경석, 『1922년 상반기 재 서울 사회단체들의 분류와 그 성격』. 『史林』 25호, 수선사학회, 2005, 211~240.
- 임경석·차혜영(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 장동진, 『식민지에서의 ‘개인’, ‘사회’, ‘민족’의 관념과 자유주의: 안창호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주의』. 『한국철학논집』 16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5, 41~70쪽.
-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임경석·차혜영(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123~177쪽.
-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崔洙逸,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최수일, 『『개벽』 유통망의 현황과 담당층』. 임경석·차혜영(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19~85쪽.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허수, 「1920년대 전반 이돈화의 개조사상 수용과 ‘사람성주의’」. 임경석·차혜영(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179~231쪽.

허수, 「1920년대 초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양상: 형태적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7호, 2008, 47~76쪽.

許洙,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62집, 2008, 353~390쪽.

국문 요약

창간 초부터 『개벽』 주도층은 사회 현안에 개입하는 한편 이돈화의 ‘사람성주의(사람性主義)’를 문화운동의 중심이념으로 정립해 나갔으나, 문화운동이 이념별로 분화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대두하는 1922년 무렵부터는 문화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광수 등의 민족 논의를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1923년 초에 제시된 ‘범인간적 민족주의(汎人間的 民族主義)’는 『개벽』 주도층의 독자적인 민족인식을 담은 것으로서, 형식 면에서는 사람성주의와 민족 논의를 결합했으며, 내용 면에서는 약소민족의 입장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止揚)한 제3의 방향을 제시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조선 민족의 문화적 발전과 정치세력의 이념적 통합을 추구한 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에 해당했으나, 통합 원리를 천도교 이념에 두었다는 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의 천도교적 변용(變容)’이라 규정할 수 있다.

● 투고일 : 2008. 7. 14.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개벽』(the Gae-Byeok), 범인간적 민족주의(pan-humanistic), 사람성주의(Doctrine of Human Nature), 민족주의(nationalism), 사회주의(socialism).